

비상의약품의 슈퍼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의식수준조사

이재명, 김정애¹, 용철순¹, 유봉규¹

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, ¹영남대학교 약학대학

의약분업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, 소비자들은 의약분업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. 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들의 비상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추진 움직임은 소비자들의 의약품의 전문성, 편리성 및 비용편익성 등에 대한 혼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자들은 약국에 내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비상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한 의식수준을 조사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. 설문조사 결과,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인 심야나 휴일에도 당번근무 약국을 통하여 비상의약품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0%는 집에 있는 의약품을 이용함으로써 큰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는 1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비상의약품을 구입한 후 편리하였다고 느낀 소비자는 불과 10%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이의 두 배가 넘는 약 20%인 것으로 나타났다. 비상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68%가 구매장소 및 시간의 제약이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. 또한 비상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 및 약국 모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서 소비자들은 약국이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적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마지막으로 슈퍼에서 비상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소비자들은 약물오남용을 가장 높게(40%) 지적하였으며 그밖에도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들을 수 없는 점을(13%) 지적하였다.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약국영업이 종료한 심야나 휴일에는 당번근무 약국을 통하여 비상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아직은 슈퍼나 편의점을 통한 비상의약품판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.